

일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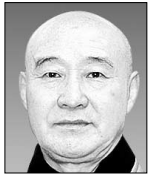
13대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에 월정사 주지 정법 스님은 4월 16일 김포 중앙승가대 분관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중앙승가대 총동문회 정기총회에서 제 13대 총동문회장으로 선출됐다.



법왕사 삼천불 점안 법회 대구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은 4월 24일 법왕사 삼천불전에서 법왕사 회주 정무 스님을 증명법사로 삼천불 점안 법회를 봉행했다.



청주BBS 이전 법회 봉행 청주 불교방송국 사장 지원 스님은 4월 26일 충북불교문화회관 4층에서 청주 불교방송국 이전 법회를 봉행했다.



광명성법대학 제2기 입학식 서울 서대문 광명사 주지 자원 스님은 4월 22일 광명사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법대학 제2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서울 보광정사 삼존불 점안법회 전 불교TV 이수덕 사장은 5월 1일 오전 10시 서울 구로구 보광정사에서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02)2618-2124



'부처님의 가르침' 주제 법문 부산여성불자회 왕선자 회장은 4월 28일 부산교도소에서 재소자 위문 법회를 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이라는 주제로 법문한다.



여성불자 108인 문집 출판기념회 불교여성개발원 이인자 원장은 4월 28일 운현궁 이노당에서 지난해 선정한 여성불자 108인의 글을 묶은 '108인 문집'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02)722-2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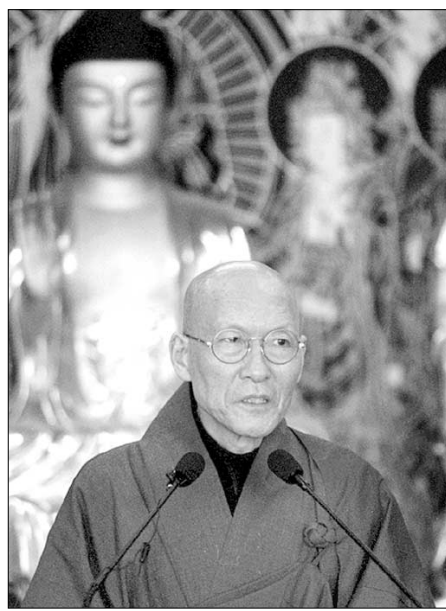
'장애인의 날' 맞아 세상나들이

부산 사회복지법인 내원(대표이사 정련)이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반야원(원장 조성)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인근 지역 사찰인 한산사, 벽수암, 대성사, 금강사 일대로 세상 나들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반야원 식구 30여 명이 동참해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김철우 기자

법정 스님 길상사서 법문(4월 18일)

"정치인들도 이제는 용서하고 화해하길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길상사 회주 자리를 내놓고 강원도 산골로 들어간 법정 스님(사진)이 봄별 가득하던 4월 18일 서울 성북구 길상사에서 오랜만에 대중법문에 나섰다. 법정 스님은 '용서'라는 화두를 던지며 부부·가족·친구 관계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상대방의 과거 허물을 들추지 말고 용서하라고 말했다. 법정 스님은 평생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내려달라고 한 제자에게 '용서는 남의 허물을 감싸주는 인간의 미덕 중 가장 으뜸가는 미덕'이라고 말한 스승의 예를 들며 '용서'에 대한 법문을 시작했다. "인간은 누구나 허물이 있습니다. 허물을 낱이 질책하면 상대는 상처를 받지만, 허물을 감싸주는 용서의 마음은 사랑과 이해의 통로를 열어줍니다"



"용서가 으뜸가는 미덕"

라고 말한 법정 스님은 관용과 용서를 강조했다. 스님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시선에는 따뜻한 마음이 없어서라며 "남의 결점이 눈에 띌 때마다 내게는 그런 허물이 없는지 되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중국 초나라 장왕이 자신의 애첩에게 입을 맞춘 신하를 용서한 고사와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남의 말이나 행동에 간섭하지 말라. 다만 내 자신의 허물과 내 자신의 행동과 말씨를 살펴 고쳐나기라'라는 <법구경> 구문을 인용하며 '부모자식, 부부, 친구 사이에서 지나간 잘못을 들추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러 법정 스님은 "이 자리에 모인 불자들도 누군가에 맺힌 것이 있다면 이 법문을 계기로 다 풀어버리라"며 "그러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 수 있을 것"이라며 법문을 마무리했다.

스님은 "가까이서 볼 때 아름다운 꽃과 멀리서 봐야 만족스러운 꽃이 있는데 이는 수행자나 인간 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며 자신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지적했다.

법문이 끝난 후 길상사는 지정전과 도서관, 선열당 건립 불사 착공식을 봉행했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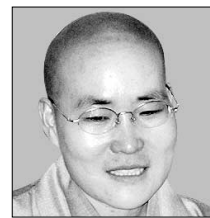
제1회 보현학술상 수상자

소운 스님·강명희 씨 선정

소운(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스님과 강명희(동국대 강사) 박사가 제1회 보현학술상 학술·포교 분야에 각각 선정됐다.

한국불교연구원 산하 보현장학회(회장 박희정)는 4월 16일 제1회 보현학술상 수상자로 소운 스님과 강명희 박사를 선정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보현장학회 심사위원회는 학술 분야 수상자인 소운 스님에 대해 "동경대학교와 하버드 대학에서 석·박



소운 스님



강명희 씨

사 학위를 마친 소운 스님은 기본적인 연구역량을 갖춰, 앞으로의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 수 있는 젊은 학자라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밝혔다. 또 심사위원회는 "강 박사는 수행단체를 이끌며 정기적으로 연수를 지도하는 불교활동가라는 점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결정됐다"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오유진 기자



황우석 교수 '세계 영향력 있는 100인'

세계 최초로 복제된 인간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데 성공해 세계적 생명공학자로 인정받은 황우석 교수(51·서울대 수의학과·사진가 최근 미시사저널<타임>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됐다.

또 황 교수는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과학의 날을 맞아 선정한 '제2회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에도 뽑혀, 4월 21일 '제37회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상과 상금 3억 원을 받았다. 김철우 기자

양주 대원정사 생전예수재 봉행



양주 대원정사(주지 해린)는 4월 18일 대원정사 대웅전에서 생전예수재 49일 기도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사부대중 4백여 명이 동참한 이날 회향법회에서 해린 스님은 "불자들은 살아 있는 동안 복을 향수 지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경찰서 경승실장 이취임식



서울 성북경찰서(서장 김종량)는 4월 19일 경찰서에서 경승실장 이취임식에서 회원 60여명이 참석하여 경승실장 이취임식을 거행했다. 행사에서는 정수 스님(성북 사암련 회장) 이취임식, 신인 경승실장 종근 스님(경국사 부주지) 취임식, 성북서 불자회장의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장 수여 등으로 진행됐다.

대불련 총동문회, 춘계 수련대회



대불련 총동문회(회장 성기태)는 4월 17~18일 남한산성 만해기념관에서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춘계 수련대회를 가졌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성태용 건국대 교수의 '대불련 동문, 사회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

은평복지관 장애인 보장구 무료수리



서울 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고재욱)은 제2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4월 20일 무료대여용품센터에서 장애인용 보장구 무료 수리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팡이, 목발, 휠체어, 의수족 등 총 30여 명의 장애인의 보장구를 수리했다.

대승사 개원 및 칠성탱화 점안식



광주 대승사(주지 자명)는 4월 22일 각화동 불용산에 법당을 마련하고 '대승사 개원 및 칠성탱화 점안식'을 봉행했다. 이날 개원법회에는 법륜종 종정 영산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천운스님과 신도 등 100여명이 동참했다.

화축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목정배 총장의 아들 호찬 군이 5월 2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소피텔 엠베서더 2층 그랜드 볼룸에서 권유진 씨와 화축을 올린다. (02)808-6582

여시아문

『금강경』해설의 3대 법사는 해안 스님, 백성숙 박사, 석래탈 스님, 이 세 분이 꼽힌다.

- 현대불교신문 2544년 6월 21일자 275호 지독 스님의 글에서

중국 선불교 다시 읽기 그리고 되받이 쓰기



중국 선사들의 선문을 패치워크방식으로 새롭게 해석

이 『선, 문밖에서 나서다』는 중국 선사들의 이야기를 한 군데에 모아 놓고, 내가 그동안 읽었던 책들, 또는 나의 짧은 생각들과 연계시켜 본 작품이다. 마치 고급 실로 짠 천 조각을 붙여 만든 조각보(패치워크)처럼…….

- 본문 중에서

선 禪 문밖에서 나서다

신국판 / 456면 / 14,000원 / 석해탈 저 / 여시아문

